

韓方의 原理란?

鄭 燦 玉



한방의 원리란, 동양철학의 근원인 음양설에 있다. 음양의 기본개념은 일체의 사물은 대립과 동시에 통일이 있는 정반의 음과 양의 이면을 갖고 있다. 음양은 천지의 도(자연계의 대립통일의 근본원칙)이다.

이것은 우주의 주물의 성장발전과 소멸은 모두가 음양변화의 법칙에 끊임없이 운동하고 결국 음양학설은 자연의 규율을 인식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사고방법으로 되어 있다 난해한 문구로 표현하고 있으나 서양의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도 결국 이 음양설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이 이론은 형이하학적이며, 음양은 형이상학적 학문이다.

우주의 원리라는 거대한 것을 떠나 조그마한 부분적인 실례를 든다면, 음양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공동체중에서 서로 상반된 관계라 할 수 있다. 한약학에서의 음양의 이론을 도입시킨 것은 외는 양, 내는 음이다. 북은 음이고, 배는 양이다. 또한 肝, 心, 胃, 肺, 腎의 5장은 모두 음이다.

膽, 胃, 大腸, 小腸, 膀胱, 三焦의 6부는 모두 양이다. 그러나 음양도 음중음, 음중양, 양중음, 양중양의 4가지가 있다.

양중양은 심이며, 양중음은 肺이고, 음중음은 腎이고, 음중양은 肝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유기적인 인체는 그 구조부위나 장부의 속이건 불문하고 모두 대립함과 동시에 통일된 음양이론과 그 실천의의를 포함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음양이 서로 상대평형이 유지되면 정상적인 생리상태가 유지되며, 협조를 잃으면 평형의 파괴가 오며, 편승이 발생한다.

■ 韓方의 原理란?

이것이 질병을 생기게 하게 된다. 즉 음이 승하면 양이 병이 되고 녹양이 승하면 음이 병이 된다. 양이 승하면 열, 음이 승하면 한, 한이 중해지면 열, 열이 중해지면 한이 된다.

이 뜻은 음양의 편승이 극단에 달하면 이상현상으로 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음양의 변화 과정 중 5행 즉 목, 화, 토, 금, 수를 생성하게 된다.

5행이란 인체 각 부분의 사이 및 외좌환경을 사이에 상호관계로 정하여 놓았다.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며 5종류로 분류하였는데 대략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신맛은 주로 간에 작용하고, 쓴맛은 심장에서 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양의 관계에 있어 상대적일 수 있다.

눈은 간에 속하는데 눈이 크면 간이 작고, 입이 크면 위가 작아 대식가가 아니며, 귀가 크면 신장이 작다고 하는 관상학적인 면도 이 5행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5행의 변화에 따라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신맛은 간에 들어가 수렴, 고정, 지상 작용하는데 이러한 작용이 필요한 곳은 실제 신의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쓴(쓴맛)은 심에 들어가 燥濕, 瀉下 작용을 한다.

이 작용은 간의 작용에 필요한 작용이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되는 것을 상생작용이라 한다. 즉, 목생화라하여 심장(화)이 좋아질려면 간(목)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상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상대가 제압되므로 해서 방해 받지 않고 활동하는 상태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예로부터 아이의 둘째 금반지를 선물로 하는 전통이 있다. 이것은 아이들은 항상 성장발육의 상태가 좋으므로 간, 즉 목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 즉 목극토, 이는 위장의 기능이 약화된다고 하여 위장의 기운을 목보다 강하게 하는 방법과 금극목으로써 금(폐)의 기운으로 목을 직접 제압하는 경우다.

이러한 이유로 금을 몸에 지니게 하여 아이로 하여금 목기가 강함을 예방

하여 건강하게 자라라고 하여 금반지를 선물하는 데서 돌반지가 유래된 것이다.

허나, 한방의 병진단과 처방은 이러한 단순한 5행의 상극뿐이 아닌 음양의 조화를 참작하여 진단하는 것이다.

음양을 병후별로써 논하며, 음에는 혈과 영이 있으며, 양에는 기와 위가 있는데, 혈에는 간과 심, 영에는 신과 비, 기에는 위와 단, 형에는 폐와 표로서 구분된다.

영이란 혈액색야의 기능을 말하며 혈액의 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위란 생활에 관여되는 신체내에서의 정신의 용를 말하는데 즉 수곡으로 생기는 기를 말하는데 감각, 운동 등 신경 계통의 작용을 관여 하게 되는 것이다.

1. 이러한 방법으로 세분하면서 증상을 구별하는데 일상적인 실례를 들면, 심장기능이 약한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심장은 음이며 혈에 해당된다. 음이므로 차가워지며 혈이 부족하여 혈액순환 장애가 되어 빈혈, 두통, 신경통 증상이 생기며, 상생상극작용에 의해 소화장애 혹은 폐의 기를 억제하지 못해서 간기능이 약화 피로하게 된다.

그런데 음중 양이 존재하고 있어 심이 약하면서도 화나 열이 생기는 수도 있다. 이때의 증상은 심약의 기본증상이 아닌 면열, 입안의 백태가 생기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도 생기게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변화를 감별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맥을 관찰하며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일맥에 관한 것은 차후에 기회가 있는대로 기술하기로 하고, 일맥과 신체적인 여건에 따라 진단 처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남녀노소 체질에 따라서 투약을 하게 된다.

알려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확한 판단과 상응하는 처방을 구성할 때 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한약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항간에는 한방의학이 비과학적이며, 비이론적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한약에 대한 무지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선 과학적

■ 韓方의 原理란?

이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보는 견해이며, 철학이 담긴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과학이 오히려 한단계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한약을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뜻은 병의 치료과정중 원인, 경과, 결과를 증명해야 하는데, 한방의학은 원인과 결과만 있으며 경과는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허나,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견해로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결과를 중시하며,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즉 미래를 본다는 것은 치료 목적만이 아닌 병을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을 중요시 하는 학문이다. 한방에서의 보약이란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방에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과학화라는 의미는 우선 한약에 있는 유기화합물(고분자화합물)의 성분을 완전히 분석하여 분자식 또는 구조식을 찾아내어 화학적 반응에 따른 변화를 다시 분자식화하여 인체에 작용하는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현재의 유기분석화학의 수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양방 의학처럼 증명할 수 없는 것일 뿐이다.

요즈음에는 이러한 것을 보완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견지로 보면 오히려 과학화 보다 위생화, 편리성의 분야를 연구 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광주 신성원)

韓方原理란?

學術委員長 蘇 秉 昌



韓方은 韓方醫藥을 指稱한 것으로 즉 東洋醫學의 醫術로 綜合的이다.

宇宙 自然의 理法인 陰陽의 配合과 五行(火, 木, 土, 金, 水)의 物質化生과 四時(春, 夏, 秋, 冬)의 季節 遷移에 따라 五運(五行의 相生 相剋) 六氣(風, 寒, 暑, 濕, 燥, 火) 五臟(肝, 心, 脾, 肺, 腎) 六腑(膽, 胃, 大腸, 小腸, 膀胱, 三焦) 病의 原因과 體質과 生理現狀 氣血 寒熱 表裏 虛實 七情(喜, 怒, 哀, 樂, 愛, 惡, 欲)과 四診으로 脈理現狀에 따라 生藥의 藥性 昇, 降, 浮, 沈과 三劑(汗, 吐, 下)와 七方(大方, 小方, 緩方, 急方, 奇方, 偶方, 複方)과 十劑(宣劑, 通劑, 補劑, 洩劑, 輕劑, 重劑, 滑劑, 澀劑, 燥劑, 潤劑)와 五色(赤, 青, 黃, 白, 黑) 五味(甘, 酸, 苦, 辛, 鹹)의 投藥과 飲食 養生 環境 等 그리고 經絡(十二經絡과 奇經)과 經穴(三百六十五穴外 新穴)의 調整으로 疾病의 治療 및 豫防에 哲學的이고 形而上學的인 原理에 立脚하여 廣範圍하게 定立되었다.

(東仁堂韓藥房 全北 益山市 南中洞 1街 173-14)

韓方原理란?

李 相 周



人體의 陰陽五行 寒熱 表裏 關係를 관찰하여 韓藥物의 昇降 浮沈 藥性の 寒熱 相生 相剋 相反 相畏를 가려 君臣 佐使를 두어 眞理와 사실에 공통한 法則으로 한약을 혼합 (배합)함을 말함.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혼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란,
한약의 昇降 浮沈 藥性の 寒熱 相生 相剋 相反 相畏를 가려 君臣佐使를 두어 眞理와 法則에 맞게 혼합(배합)하여 제조한 제제를 말함.

2004. 1. 5

(안양 성수당한약방)